

## 비소세포성 폐암의 외과적 치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박진규·선기남·장원기·김민호·조종구·김공수

원발성 폐암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79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수술받은 183례를 대상으로 관찰하였다. 성별은 남자 164명, 여자 19명 (M:F = 8.6:1)이었고, 호발연령군은 50대와 60대로 모두 135례 (73.7%)였다. 대부분의 증상은 호흡기 계통으로 기침 44.8%, 흉통 30.1%, 호흡곤란 20.8%, 혈담과 객혈 19.7%, 객담 15.3%, 무증상이 12.0%였다. 발생부위는 좌상엽이 52례 (28.4%), 우상엽이 49례 (26.8%), 좌하엽 45례 (24.6%), 우하엽 30례 (16.4%), 그리고 기타 12례 (6.6%)의 순이었다. 병리 조직학적 분류로 편평상피세포암이 68.9%, 선암 19.7%, 기관지 폐포암 2.2%, 선편평상피세포암 1.6%, 대세포암 7.7%였다. 흡연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138례 (75.4%)였으며 이중 102례 (73.9%)가 편평상피세포암이고 36례 (26.1%)만이 비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병기별 분포는 stage I 38.3%, stage II 14.8%, stage IIIa 31.1%, stage IIIb 15.8%였으며 절제율은 stage I, II, IIIa가 100%, stage IIIb가 86.2%였다. 술전, 술후의 병기가 일치하였던 경우는 stage I 53.8%, stage II 23.1%, stage IIIa 46.2%, stage IIIb 100%였으며 전체적으로 46.0%였다. 수술방법은 일측 전폐절제술이 41.5%, 엽절제술이 41.6%, 이엽절제술이 14.1%, 구역 및 부분 절제술이 1.6%, 시험개흉술이 2.2%였으며 절제율은 97.8%였고, 수술로 인한 조기 사망은 1.6%였다. 수술후 합병증은 32.2%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로 무기폐, 기관 늑막루 및 농흉, 창상감염, 애성, 출혈, 소화성 궤양, 급성 호흡곤란, 폐렴 및 늑막 삼출 등이었다. 추적 관찰기간중 발견된 원격전이는 26례 (14.2%)였으며 주로 뇌, 골격, 흉벽, 간, 신장 및 부신 등이었다. 수술후 보조적 치료는 59례 (32.2%)에서 시행되었으며 방사선요법이 15.3%, 화학요법이 9.3%, 이들 두 가지의 병합요법이 7.7%였다. 전체 생존율은 1년 3년, 5년에서 각각 77.8%, 42.7%, 39.5%였으며, 병기별 5년 생존율은 stage I 53.0%, stage II 46.5%, stage IIIa 28.2%, stage IIIb 1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p < 0.05$ ),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있는 N2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1.1%였고 N1환자는 32.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5$ ). 수술방법에 의한 5년 생존율은 폐엽절제술이 45.0%, 일측 전폐절제술이 30.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5$ ). 조직형별 5년 생존율은 편평상피세포암이 43.1%, 선암이 23.3%, 거대세포암이 30.3%였다 ( $p > 0.05$ ).